



## KSSB 기반 ESG 의무공시 대응 전략

핵심 쟁점과 운영체계 전환 방향

Deloitte Insights

“

최근 금융위원회의 ESG 의무공시 로드맵과 법안 발의로, 기업의 공시 환경은 중요한 전환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ESG 공시는 선택적 정보 공개가 아니라, 재무적 영향과 연결된 핵심 정보로서 투자자의 요구이자 자본시장의 기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결기준 공시, Scope 3 확대, 검증 요구 강화는 공시 대응을 데이터 관리와 운영체계 구축의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딜로이트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핵심 쟁점과 실행 방향을 제시하고, 고객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 박태호 파트너

ESG 공시, 보고서 및 평가대응 |  
ESG 통합서비스그룹

# 금융위원회 ESG 공시 로드맵 초안 제시

국내 ESG 연결공시 로드맵 초안('26.2.25) 발표에 따라,  
대상 기업들은 2028년까지 KSSB 기반의 의무 공시와 **Pilot** 보고서 준비 필요

2028  
(FY2027)



연결자산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연결종속 10% 미만 면제)

2029  
(FY2028)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031  
(FY2030)



Scope 3 배출량 공시 의무  
(첫 의무 공시 대상 기업부터 적용)



상세한 내용은 리포트 전문에서 확인하세요!

# ESG 공시 관련 주요 논의 현황

여당은 공시 의무 확대를 담은 입법안 발의,  
국민연금은 공시 시기와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구분	금융위원회 로드맵 (초안)	공시 법안 발의 (자본시장법 개정)	국민연금 ESG 공시 수정 의견서
공시 형태	거래소 공시 우선 검토 (추후 법정공시 검토)	법적 공시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법적 공시 조속한 시행 (2029년 전후)
검인증 의무화	자율 참여 (의무화 미정)	제한적 검증 도입 (단계별 의무화 후 1년 유예)	별도 언급 없음
공시 시기	연결자산 30조 이상, FY2027	4단계 확정 도입 10조이상 FY2027 시작 단계적 확대	대상 확대 도입 (연결자산 2조 이상, FY2027)
Scope 3 공시 시기	3년 유예	동일 (금융위 기준 준용)	1~2년 유예
법적 책임	별도 언급 없음	형사책임 면제	책임 강화 필요

# 자율공시 vs. 의무공시

자율공시가 기업의 선택, 투자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의무공시는 법이 정한 표준에 따라 정해진 기한과 위치에 공시

ESG 자율공시	Vs	ESG 의무공시
법적 의무 없음 (기업 자율 공개)	법적 요구	법적 규제 기반 (의무 공시)
자발적 공시	보고 대상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
가이드라인 선택 적용	보고 기준	법정 기준 적용 (KSSB, ESRS 등)
보고서 형태·시기 자율 (지속가능보고서 등)	보고 형태	지정 위치·기한 내 공시 (사업보고서 등)
기업별 상이	정보의 일관성	표준화 → 비교가능성 높음
선택적 공개 가능성	신뢰성	법적 책임 기반 신뢰성 확보

# KSSB 공시의 산업별 핵심 영향

KSSB 공시 부담은 산업이 아니라, 배출 구조와 데이터 구조에 의해 결정



**에너지·자원·산업재**  
(ER&I)

- ✓ Scope 1·2 중심 공시 부담 확대
- ✓ 탄소 비용-CAPEX 의사결정 직결
- ✓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영향



**소비자 부문**  
(Consumer)

- ✓ Scope 3 데이터 확보 부담 증가
- ✓ 공급망 관리 및 협력사 대응 강화
- ✓ 외부 데이터 신뢰성 이슈



**금융 부문**  
(FS)

- ✓ 포트폴리오 기반 배출량 관리 필요
- ✓ 기후 리스크의 재무 영향 반영
- ✓ 리스크 관리-공시 통합 요구



**생명과학·헬스케어**  
(LSHC)

- ✓ Scope 3 중심 데이터 관리 확대
- ✓ E·S 통합 공시 요구 증가
- ✓ 글로벌 공시 대응 및 검증 부담






**첨단기술·미디어·통신**  
(TMT)

- ✓ Scope 2(전력) 관리 중심 공시
- ✓ 에너지 비용-운영 효율성 연계
- ✓ 글로벌 데이터 일관성 확보 필요

# KSSB 대응의 핵심 쟁점

KSSB 공시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공시체계 정비와 함께 핵심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 공시체계 구축 적용 필요

 연결기준 적용	 단계별 로드맵 적용	 통합 공시체계 구축 적용
종속회사간 수준 차이로 인해 데이터 정합성 이슈 해결 필요	Scope 3, 인증 등 요구사항 단계별 적용 필요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프로젝트 통합 추진 필요



01 단계별 추진

02 표준화 및 일관성 확보

03 내부통제 적용

04 시스템 구축 전제

# 딜로이트의 KSSB 대응 로드맵

3단계 핵심 전환 로드맵을 통해  
기초 설계부터 연결 고도화, 시스템 내재화까지 포괄적인 공시 체계 확립

## Phase 1 설계 단계

(구조설계·데이터 선별·예비준비)

공시 기준, 데이터 구조,  
거버넌스를 정의하고 파일럿 보고를 통해  
데이터 공백과 한계를 사전 점검

## Phase 2 실행 및 구축 단계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

연결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며 Data Closing  
및 통합 공시 시스템 도입

## Phase 3 고도화 단계

(시스템·AI 활용 고도화)

데이터 자동화·품질 관리 고도화와  
글로벌 규제 대응 및  
조직 KPI 연계를 통한 내재화

# 그룹사 프로젝트 운영체계

KSSB 의무공시는 연결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그룹 컨트롤타워(지주사)와 실행 주체(계열사)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수적

## 설계단계

### 지주사 역할: 컨트롤타워

- 공시 기준·정책 수립  
(경계, 중요성, 산정 방법론 등)
- PMO 운영 및 이사회 연계
- 데이터·통제·시스템 기준 정의

## 실행 및 구축 단계

### 지주사 역할: 총괄 및 검증

- 공시 템플릿 배포
- 연결공시 취합·조정·작성
- 데이터 품질 및 정책 관리
- 외부 검증 대응 및 이사회 보고

### 계열사 역할: 실행주체

- 데이터 오너 지정
- 공시 데이터 식별 및 공급망 맵핑
- 파일럿 수행 및 Baseline 설정
- 현업-재무-ESG 검토체계 구축

### 계열사 역할: 제출 및 개선

- 데이터 제출 및 증빙 관리
- 자체 검증 및 데이터 개선
- 그룹 일정 준수 및 운영 대응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

## ESG 통합서비스 그룹

깊이 있는 산업별 전문 지식과 다년간의 ESG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 걸쳐 기업의 실효성 높은 저탄소 전환 및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딜로이트의 차별화된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술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조남진 파트너

ESG 통합서비스그룹 리더

☎ 02 6676 3700

@ namcho@deloitte.com

### Nicola Weir 파트너

CSRD & Global Corridor |  
ESG 통합서비스 그룹

☎ 02 6676 3178

@ nweir@deloitte.com

### 김병삼 파트너

ESG 전략 및 공시, 탄소중립  
기후 기술 | ESG 통합서비스그룹

☎ 02 6099 4277

@ byungsakim@deloitte.com

### 박태호 파트너

ESG 공시, 보고서 및 평가대응 |  
ESG 통합서비스그룹

☎ 02 6676 2163

@ taehpark@deloitte.com

### 연경흠 파트너

ESG 전략 및 공시 | ESG 통합서비스그룹

☎ 02 6676 1949

@ kyeon@deloitte.com

### 유준혁 파트너

ESG 전략 및 탄소배출 |  
ESG 통합서비스그룹

☎ 02 6676 3096

@ junyoo@deloitte.com

### 허규만 파트너

ESG 공시 및 Assurance |  
ESG 통합서비스그룹

☎ 02 6676 1454

@ kyhuh@deloitte.com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Deloitte.

## Insights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연구원**

**김혜련 Senior Manager**

hyerykim@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